



지부교섭 속보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상병휴직 기간 보장
기본급 146,746원 인상!

제06호 / '18.5.31(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mu.kr

노조 무시한 사측 제시안

2주만에 본교섭 개최

7차 지부교섭이 31일(목) 15시 30분 충주의 한국KDK에서 열렸다. 노사 양측은 지난주 6차 교섭을 실무교섭으로 진행하고 2주만에 본교섭을 열었다. 사측에 2주간의 시간을 준 만큼 이번 교섭에서는 사측 제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대로 1차 제시안이 나왔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너무 형편없는 제시안이 나왔다.

이럴거면 왜 시간 달라 했나

사측이 내놓은 제시안은 하나마나한 얘기만 늘어놓은 것이었다. 2주간의 논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성의없는 내용이었다.

<1차 제시안>

1. 2018년 임금인상

- 추후 제시

2.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 제시안 없음

3. 상병휴직 기간 인정

① 개인 상병휴직(진단서 첨부)에 따른 병

가휴직의 경우, 치료기간까지 인정한다. 단, 치료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선 사업장 단체협약에 따른다.

② 개인 상병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사업장 단체협약에 따른다.

임금안은 노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돌입하는 만큼, 추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는 얼마든지 부담없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지금 지부교섭에 나오고 있는 사업장은 별반 달라질 것도 없다. 그냥 수용하면 될 요구안이다. 그러나 사측은 제시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상병휴직기간 문제는 더 가관이다. 치료를 위한 휴직을 3개월까지만 인정하겠다고 한다. 이미 모든 사업장이 최소 3개월 이상은 된다. 지부를 무시한 제시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논의할 수 있을 만큼은 제출하자

지부는 지난 교섭에서 올해 요구안이 부담없는 수준인만큼 사측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 지부교섭 형식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제 사측이 성의있게 답변해야할 차례다.

논의할 것도 없이 너무 형편없다.

사 : 먼길 오느라 고생하셨다.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뤄지고 올해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섭이 이뤄지고 서로 양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섭이 마무리되고, 종업원이 건강했으면 한다.

노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아마도 최저임금 개악과 소득 양극화 심화 때문에 복미 대화의 호기인데도 지지율이 떨어진 것 같다. 노조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품사까지 하후상박 문제의식이 내려갈 예정이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 오늘 회사가 제시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시안 받고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

사 : 나름대로 안을 내왔는데 조합에서 생각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고, 사업장 규모별 편차가 있어서 감안하고 봐줬으면 한다.

〈제시안 제출〉

노 : 사측 제시안이 너무 형편없다. 논의할 것도 없는 것 같다.

차기 교섭은 6월 7일 15시 한온시스템지회에서 진행한다.